

분리구문의 전제와 조용성

김 창 익
(호서대학교)

Kim, Chang-Ik. 1999. *It-cleft Presupposition and Anaphoricity*. *Linguistics* 7-2, 269-28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van der Sandt's (1989) notion of presupposition as anaphora and empirical evidence for the anaphoricity of cleft presupposition. Presupposition is treated as a species of propositional anaphora. The presupposed proposition is seen as requiring an antecedent in the discourse context in order to be felicitous, in much the same way as anaphors such as definite descriptions do. Empirical evidence that presupposition acts anaphorically in discourse can be of three types. With special reference to *it-cleft* presupposition, the anaphoric features are examined. The first feature is that elements that are ambiguous between an anaphoric and an emphatic use take on their anaphoric reading when placed within an *it-cleft* presupposition. A second anaphoric feature of *it-cleft* presuppositions is their ability to establish contrastive relationships with preceding discourse. A third one in presupposition can be couched as a simple distinction between utterances that *remind* and utterances that *inform*. (Hoseo University)

1. 서 론

자연언어의 전제는 투사문제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자연언어의 어떤 표현이나 구문들은 그들이 가지는 부정연산자와 상관 없이 일정한 추론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소위 전제유발자(trigger)¹라 하는 것들로서 이들이 일으키는 추론을 전제라 한다. 전제의 내용은 유발자와 그 논항으로부터 결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추론이 모든 상황속에서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다. 투사문제는 이 추론이 일어나

¹영어표현에는 여러 가지 전제유발자들이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정기술(the + NP), 고유명사, 유사분리구문(WH S, is NP), 양화사(all + N), 사실적 구문(x regrets that S), 종속절구문(when S, P), 반복어(again, too), 어휘(bachelor) 등이다.

는 때와 일어나지 않는 때를 정확히 기술해 내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²

전제투사에 관한 현대판 최초 연구는 Karttunen이 시작하였으며 그는 기본적으로 의미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많은 반증 예들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화용론적 접근이 등장하게 된다. Garzdar(1979), Soames(1982), van der Sandt(1988)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접근 방법도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의미론적인 요소와 화용론적인 요소를 가능한한 통합시키려는 시도이다. Heim(1982)과 van der Sandt(1989)가 이에 속한다. Heim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부분적 정보와 전제사이에 성립되는 논리적 귀결의 관계는 의미론의 영역이라 볼 수 있고, 전제수용의 개념은 화용론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van der Sandt의 접근에서는 투사문제를 두 가지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조용적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전제수용이다. 전자는 다분히 의미론적 과정이라 볼 수 있고 후자는 다분히 화용론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도적인 접근은 실증적 예들을 잘 설명하고 또한 전제 연구에서 Frege(1952)와 Strawson(1964)의 직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중도적 접근의 관점에서 볼 때, 전제는 그 유발자의 사용에 관한 선조건(precondition)이 되며 전제가 참이 아닐 경우에는 발화의 비정상성이 초래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van der Sandt(1989)의 조용분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이 조용현상이 특히 분리구문(it-cleft construction)³의 전제에서 어떠한 속성들로 나타나는지를 살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분리구문 전제의 지위

분리구문의 전제에 대하여 그 전제적 내용이 조용적이냐, 아니면 정보적이냐에 학자들간에 다소 이견이 있어 보인다(cf. Prince1978, Declerck1988). 조용적이라는 견해는 그 전제적 내용이 구정보라는 것이고, 정보적이라는 견해는 그 전제적 내용이 신정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간략히 다루려 한다. 먼저 전제유발자로서의 분리구문에 관하여는

²Zeevat(1992:379), Karttunen(1973), Gazdar(1979), Heim(1983)등 많은 전제투사에 관한 연구자들이 이에 의견을 같이 한다.

³분열문이라고도 하나 여기서는 모두 분리구문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의하기로 한다.

2.1 분리구문의 전제

분리구문이라 함은 소위 *It - who(that)*의 구문을 일컫는다. 때로는 이를 분열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분리구문은 여러 전제유발자들 중의 하나로써 전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다음 (1)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a. It was my friend who was caught.
- b. It wasn't my friend who was caught.
- c. Someone was caught.

참고적으로, (1a)와 (1b)에서 *who*이하의 부분은 '분리절'이라고 하며, *who* 바로 앞의 부분은 '분리된 요소'라고 한다. (1a)와 (1b)는 유사한 구조를 취하지만, (1a)는 긍정의 분리구문이고 (1b)는 부정의 분리구문이다. 이 두 경우에 긍정문은 물론이려니와 부정문에도 부정의 연산자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추론인 전제 (1c)를 실어 나르고 있다. 이 전제 (1c)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듯이 관계대명사인 *who*대신 존재양화사인 *someone*을 대치시켜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분리구문 전제의 지위

전제는 맥락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화용론적 전제를 연구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전제를 연구하는 이들도 맥락이 발화를 만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맥락과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는 것 같다. 그래서 전제는 그 전제유발자의 사용에 관한 선조건이 될 수 있으며, 화자 청자간에 당연시 여기는 부분이다. 이는 전제가 이전 맥락에 포함된 구정보로서의 명제적 내용임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Dinsmore(1979)는 구정보의 개념을 사용하여 다음 (2)와 같이 전제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 (2) S_1 presupposes S_2 iff for any $c \in C$, $F(c, S_1) \rightarrow V(c, S_2) \in A(c)$

위 (2)의 전체 정의는 S_1 이 적정하게 쓰이는 맥락에서 S_2 로 표현되는 명제가 구정보이면, S_1 이 S_2 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2)의 정의중 $F(c, S_1)$ 는 S_1 이 맥락 c 에서 적정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 때 F 는 '적정하게 (felicitously)' 라는 영어단어의 첫글자이다. $V(c, S_2)$ 는 S_2 가 맥락 c 에서 쓰일 때 얻어지는 명제를 뜻하고, $A(c)$ 는 맥락 c 에서 구정보의 집합이고⁴, 따라서 $V(c, S_2) \in A(c)$ 는 S_2 가 맥락 c 에 쓰일 때 얻어지는 명제가 구정보의 집합의 한 원소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 집합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S_1 이 주어진 맥락 c 에서 적정하게 사용되고 S_2 를 전제한다.

또다른 전체 정의로서 Heim의 정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다음 (3)과 같다:

(3) S presupposes p iff all contexts that admit S entail p .

단, S 는 (2)의 S_1 이며, p 는 (2)의 S_2 이다. 문장 S 를 허용하는 모든 맥락들은 곧 명제들의 집합이다⁵. 그러므로 그 명제들의 집합이 명제 p 를 함의하고 있기만 하면, 문장 S 는 명제 p 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 때에 명제들의 집합이 명제 p 를 함의한다는 말은 구정보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구정보를 전하는 분리구문의 전체를 다음 (4)를 통하여 보기로 한다.

(4) a. It was Mary who broke the window.

b. Someone broke the window.

위 예에서 (4a)는 (4b)를 전제한다. 이 때, (4a)의 상황은 강조적 용법의 분리구문으로서 *Mary*에 강세가 놓여지며 발화되는 것이라고 설정해본다. 그렇다면 이미 창문이 깨진 상황에서 깬 장본인이 누구인가 발화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b)는 구정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분리구문을 관찰해 볼 때, 그 모든 종류의 전체가 구정보인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이 100% 옳다고 볼 수 없는 예들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을 근거로 Declerck(1988:210)은 분리구문의 전체 내용이 꼭 구

⁴위 $A(c)$ 는 맥락 c 에서의 구정보이지만, 이것은 원래 $B(c)$ 를 대치시킨 것이다. $B(c)$ 는 맥락 c 에서 화자와 청자가 갖는 믿음의 집합이었다. 믿음은 하나하나 명제로 표현되므로 $B(c)$ 는 믿음을 나타내는 명제들의 집합이다.

⁵맥락(context)을 명제의 집합으로 보고 있다.

정보로 구성될 필요가 없다고 한다. Prince(1978)는 한술 더 떠서 아예 두 종류의 분리구문으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강조용법의 분리구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적 전제를 실어나르는 분리구문이다⁶. 전자는 전제의 내용이 구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이며, 후자는 전제의 내용이 신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이다. 구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는 위 (4)에서 이미 보았으므로 신정보를 담고있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보기로 한다.

다음(5)-(8)은 신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분리구문의 전제들이다.

(5) It was in 1886 that ... Lewin published the first systematic study of the catus.

위 예문에서 1886년이란 시점이 분리된 요소이지만 분리절인 *that* 이하의 부분이 구정보라기 보다는 다분히 신정보라는 느낌이 든다. 명확한 구분은 안 서지만 우리의 언어적 직관에서 신정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보다 조금 더 명확한 구분이 서는 것으로서 다음 (6)의 예를 보기로 한다.

(6) C.B.: So who's Barbara?

B.S.: Let me put it this way. When you last saw me with anyone, it was Barbara I was with.

위 (6)은 C.B.의 물음에 대한 B.S.의 답변에서 B.S.는 어떻게든지 적절한 설명의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위의 이탤릭체로 표현된 분리구문의 전제는 이전의 맥락에서 진술된 구정보라기 보다는 새로이 진술된 정보로서 '나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처음으로 대화에 등장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다음 (7)은 더욱 분명한 신정보를 담고있는 분리구문의 예이다.

(7) In complete self-effacement, sweeping all pity aside, she gave herself to Helen, working tirelessly to open lines of

⁶분리구문의 강조용법은 분리된 요소에 강세가 두어지는 경우로서 이는 분리절의 전제가 이전 맥락에서 그 선행문을 복원할 수 있으나, 정보적 전제를 실어나르는 분리구문에서는 분리된 요소보다는 분리절에 힘이 실리는 경우로서 이전 맥락에서 그 선행문을 복원할 수 없다.

communication between the imprisoned child and the work of people and nature around her. *It was the day after Anne Sullivan's arrival that Helen learned the finger language for the word 'doll'.* Anne spelt it into her hand very slowly and deliberately, and got Helen to imitate.

이 대목은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이다. 이텔릭체로 표시된 부분의 분리구문의 전제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앞에서는 전혀 언급될 수 없는 정보로서, 시간을 강조하기 보다는 'doll이라는 단어의 지화(finger language)를 배웠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다음 (8)은 분리구문의 전제가 더욱 분명한 신정보를 담고 있는 예문이다:

(8) A: Joe Wright you mean.

B: Yes yes.

A: I thought it was Joe Wright who'd walked in at FIRST.

위 대화에서 A와 B가 대화를 교환할 때, 전혀 새로운 정보를 분리구문을 통해 실어나르고 있다. A의 의도는 *Joe Wright*에 대하여 보다는 오히려 '맨 먼저 안으로 걸어 들어온 사실'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그가 *Joe Wright*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신정보를 실어나르는 분리구문의 사실에 대하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전제된 정보가 만족되지 않는 맥락에서도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관찰은 이미 Stalnaker(1974:191)와 Karttunen(1974:202)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Prince(1978)는 모든 종류의 분리구문에 대하여 전제의 일반적인 기능은 전제된 정보가 '알려진 사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고, 그의 이전 주장과 모순된 주장을 펴면서 화자의 판단을 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조용현상으로서의 전제

전제를 조용어로 보는 van der Sandt(1989)의 조용분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조용

조용(Anaphora)이란 이전 담화에 소개되었던 실체를 지시하기 위하여 특정 어휘(특히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조용의 대표적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조용의 유형(Sells & Wasow 1994:116)

- a. *The children love their parents.*
- b. *The children love themselves.*
- c. *The children love each other.*
- d. *The young children love the older ones.*
- e. *This dress has three large holes and that shirt has two ____ .*
- f. *Children will break the law if adults do it.*
- g. *Children will break the law if adults do ____ .*
- h. *Some people who break the law do so repeatedly.*

위에서 밑줄로 표시된 것들은 조용어(Anaphor)이며, 이탤릭체로 표시된 것들은 각 조용어가 지시하는 선행어(Antecedent)이다. 단, (9e)와 (9g)는 밑줄만 그어져 있고 조용어의 형태가 없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영조용(Zero anaphora)이라고 한다. 영조용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조용어는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조용현상에서 의미론적인 핵심 문제는 조용요소의 해석이 그 선행어의 해석과 어떻게 관계되는냐이다.

3.2 조용현상으로서의 전제

앞절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조용은 어휘적 조용이다. 그러나 어휘적 조용이 아닌 명제적 조용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제이다. 전제를 일종의 명제적 조용으로 취급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보통이 되었다. 즉, 전제된 명제는 적절한 발화가 되기 위해서 선행어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확인된다. 이것은 한정기술과 같은 조용어가 선행어를 필요로 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van der Sandt 1989, 1992). 지금부터 전제를 조용현상으로 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예문들을 자세히 살펴 보기

로 한다. 이의 설명을 위해 Karttunen(1973)이 사용했던 전제투사에 관한 예문들을 인용하면 다음 (10)과 같다.

- (10) a. Jack has children and all of Jack's children are bald.
 b. If Jack has children, then all of Jack's children are bald.
 c. Either Jack has no children or all of Jack's children are bald.

위 문장들은 두 번째 절에 전제를 일으키는 소유격 구조인 *Jack's children*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위 (10)의 문장들을 다음 (11)의 소위 당나귀 문장들(donkey sentences)과 비교해 보면,

- (11) a. John owns a donkey. He beats it.
 b. If John owns a donkey, he beats it.
 c. Either John does not own a donkey or he beats it.

두 문장들 (10)과 (11)사이에는 상당한 구조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 같다. (10)의 문장들에서 명사구가 발견되는 경우마다 (11)의 문장들에서는 대명사가 발견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10)에서 명사구인 *all of Jack's children*이 쓰이는 자리마다 (11)에서는 대명사인 *he*가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에 따라 (10)의 문장들에서 전제유발자인 명사구들을 대명사화할 수 있는데, *they*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그러면 (10)을 당나귀 문장형태로 만들게 된다. 이와 반대로 (11)에서의 대명사들을 완전한정명사구들(full definite-NP)로 대치시키면, 전제 여과⁷의 활용 예인 (10)과 같은 문장형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van der Sandt 1992:344). 다음 (12)와 (13)이 이들의 대치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12) If Jack has children, then they are bald. ((10b)의 대치)
 (13) If John owns a donkey, he beats his donkey. ((11b)의 대치)

이 때, 어느 경우에도 대치 전과 대치 후의 의미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여

⁷복문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전제가 복문 전체의 전제로 경우에 따라 살아남기도 하고 차단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를 여과(filter)라고 하고 이때의 전제유발자를 여과기라 한다. 여과기의 예로서는 if~then, and, or 등이 있다.

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3)의 조용어 *he*는 선행어 *John*을 지시하고 있는 조용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12)의 전제를 유발하는 소유격 구조를 대명사 *they*로 바꾸어 놓으면 역시 조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유사한 메커니즘이 대명사 분석과 전제여과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제현상을 기술하는 또다른 용어를 암시하는 것이다. (10)의 전제들이 증지, 취소, 중화된다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이 대명사처럼 이전에 설정된 선행어에 결속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제를 조용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관찰된 행동은 명사구 조용 즉, 한정기술, 소유격 구조, 그리고 제한적 관계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사구 조용과 명제적 조용을 논의하며 전제의 조용현상을 찾아보려 한다. 위와같은 구조적 유사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소유격 구조 이외의 다른 전제유발자, 즉 분리구문을 비롯하여 상동사구문, 전제적 부사구문 등으로 확대시켜 살펴 볼 수도 있다. 다음 (14)와 (15)는 동사구 조용(VP-anaphora)이다.

(14) If someone solved the problem, it was Julius who {solved it/ did}.

(15) If Harry stopped smoking, John {stopped/ did} too.

다음 (16)과 (17)은 명제적 조용(Propositional anaphora)이다.

(16) If John is ill, Mary regrets {that/ that he is ill}.

(17) If John died, he did see **his children** before {that/ he did/ he died}.

위 (14)는 전제적 분리구문이, (15)는 전제적 부사구문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16)은 사실적 전제구문이, (17)은 전제적 시간절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이 때, 명사구 조용의 경우처럼, 동사구 조용어 및 명제적 조용어들과 그들의 어휘적 완전 확장 사이에는 의미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 또한 앞의 경우에서처럼 전제 표현들도 이전에 설정된 선행어에 의해 결속되는 것 같다.

그러나 적절한 선행어가 없이 사용되는 전제구문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을 관찰해 보면, 전제는 조용어와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대명사가 적절한 선행어와 연결될 수 없는 경우에 전체 문장은 그 해석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에서 전제 문장은 확고부동한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이 점에 있어 전제 구문은 대명사, 동사구 및 명제 조용어와 다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전제는 자체의 의미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조용어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전제가 조용어와는 다르게 청자에게 수용되는 사실로 잘 드러난다. 만일 조용어가 적절한 선행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조용어는 확정된 값을 갖지 못하고 만다. 그러나, 전제 표현들은 이전 담화가 선행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앞서 말했거니와 선행어를 설정할 수 있을 만큼 자체적으로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전제내용을 근거로 역설정되는 선행어가 담화에 수용되어 결과적으로 생기는 기존 담화 내용의 수정에 이르게 된다. 비로소 전제는 대명사 조용어표현과 같이 결국 그 해석을 가질 수 있는 동일구조를 취한 셈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전제 수용(Accommodation)이라 일컫고 있다. 다음 (18)은 전제수용의 효과를 설명한다.

(18) a. I just stopped smoking.

b. I used to smoke. (Chierchia & McConnell-Ginet 1990:294)

(18a)는 금연식을 요청하려는 승객이 항공사 직원에게 행할 수 있는 발화이다. 이런 경우에 전제인 (18b)가 마치 담화에 있었던 것처럼 청자의 맥락에 수용되면서 추가된다.

요약하자면, 전제란 단순히 말해서 조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담화가 선행어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제는 지시표지를 설정할 충분한 자체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4. 분리구문 전제의 조용성

지금까지 전제는 일종의 명제적 조용어로 취급될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구정보로서의 전제 지위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전제는 정보를 알려진 사실(known fact)로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rince(1978:903)에 따르면, 이 알려진 정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 (19) **Known information:** information which the speaker represents as being factual and as already known to certain persons (often not including the hearer).

이 알려진 정보는 사실로서 이미 어떤 사람에게 알려진 것으로 화자가 표시하는 정보를 뜻한다. 그러므로 전제는 다음 세가지의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첫째, 알려진 사실이니 나에게 따지지 말라. 둘째, 알려진 사실이니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셋째, 내가 한 말이 아님을 본인도 알고 있다. 이것은 분리구문의 전제를 사용하는 화자는 그가 전제된 정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전제는 위와 같은 담화 특성을 성취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담화 특성을 성취시키는 데에는 더 근본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된 분리구문 전제의 조용성이다. 전제가 담화에서 조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전제의 조용적 증거를 알아보기 전에, 조용어로서의 전제의 개념은 담화표시이론의 체계에서 전제에 관한 표시를 할 때, 매우 유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4.1 조용어로서의 전제 개념과 유용성

조용어로서의 전제 개념의 유용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전제를 Kamp(1981)의 담화표시이론 내에서 표시할 때,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대명사의 조용결속으로 처리하면 간단하게 분석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의상 조용어로서의 전제 대신에 대명사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담화표시이론에서 대명사의 조용이 어떻게 분석 처리되는가는 다음과 같다.

담화표시이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이하 DRT라 함)에서 한 담화의 처리과정은 증대되어 가는 과정이다. 처리되어야 할 이후의 각 문장은 이전 문장을 처리함으로써 생긴 한 구조의 맥락에서 취급된다. 이 증대되는 처리과정을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처리규칙은 한 문장을 순서대로

분석 해체해 나가는데, 그 문장의 각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표시구조에 첨가될 ‘조건들(Conditions)’로 만들어 대체해 나간다. 다음 (20)의 문장을 처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20) A man walked down the street. He whistled.

이 (20)의 문장을 담화표시구조(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 이후 DRS)로 나타내기 위해 맨 처음 비한정 명사구인 *a street*에 대한 표시구조 맥락에서부터 출발해 보기로 한다. 다음 (21)과 같이 그 표시구조를 갖는다. 비한정명사구이므로 새로운 지시표지⁸ *x*를 도입한다. 단, 이 DRS는 하나의 지시표지(담화표지)와 하나의 조건⁹을 포함하고 있다.

(21) (x) (street(x))
 / \
 지시표지 지시표지의 조건

비한정명사구는 새로운 지시표지를 도입하도록 하는 반면, 한정명사구는 기존 표지에 결속된다. 그러므로 (20)의 첫 문장은 비한정명사구인 *a man*을 위하여 새로운 표지 *y*를 도입해서 하나의 조건인 *man(y)*로 표시되고 또한 *a man*이 빠져나간 자리에 대신 *y*를 대치시킨 또하나의 조건인 *y walked down the street*로 표시될 수 있다. 두 번째의 조건은 다시 한정명사구인 *the street*를 위하여 그 구조에 새로운 표지 *z*를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분석 해체되어 표시될 수 있다. 먼저 표지 *z*를 기존 표지 *x*와 결속시킨다. 그러면 *z=x*가 된다. 그 다음에 한정명사구를 새로운 조건인 *street(z)*로 대체한다. 이로써 *the street*가 DRS에 번역되어 표시될 수 있

⁸이것은 영어의 discourse marker, 혹은 referential marker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지만, 조경숙(1998:206)은 이것을 ‘담화지시물’이라 쓰고 있다.

⁹조건(condition)이란 개념은 흔히 사용되는 개념과 다를 바 없으나 보통명사를 비롯하여 형용사, 동사와 같은 내용어와 단문, 복문, 그리고 중문과 같은 문장들을 담화표시구조로 번역해 놓은 것으로서 그 종류로는 원자적 조건, 결속조건, 복합조건 등이 있다.

으며, 그 자리에 z 를 대치시키면 y walked down z 만 남는다. 이것은 2항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형식으로서 2항술어의 조건으로 번역하면 $walked-down(y,z)$ 로 된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추가 표시하면 도합 세가지 새로운 조건을 부여하는 셈이 된다: $z=x$, $street(z)$, 그리고 $walked-down(y,z)$.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과정을 종합하면, (20)의 첫문장을 위한 DRS는 다음 (22)와 같다:

(22) (x, y, z) ($street(x)$, $man(y)$, $z=x$, $street(z)$, $walked-down(y, z)$).

다음으로 (20)의 두 번째 문장인 *He whistled*를 처리해 보면, 새로운 결속과 새로운 조건이 생긴다. 우선 조용적 대명사인 *He*는 새로운 지시표지인 u 의 도입과 이 u 와 y 의 결속을 나타내는 결속조건 $u=y$ 로 표시되고 그 나머지 u whistled는 1항술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1항술어의 조건 $whistled(u)$ 로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결속조건과 새로운 조건을 전부 표시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 (23)과 같다:

(23) (x, y, z, u) ($street(x)$, $man(y)$, $z=x$, $street(z)$, $walked-down(y, z)$, $u=y$, $whistled(u)$).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명사의 조용결속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분리구문의 전제를 명제적 조용어로 본다면 담화표시 이론의 체계에서 전제 표시에 대한 기술 부담이 크게 경감이 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 유용성이 드러나는 셈이다.

4.2 분리구문 전제의 조용성

다음으로 담화에서의 전제 조용성에 대한 언어적 증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Delin(1992:296)에 의하면, 분리구문의 전제 조용성에 대해 다음 세가지 유형의 증거가 요약되고 있다: 첫째, 조용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 사이에 있는 애매한 요소들이 분리구문의 전제 이내에서 조용적 해석을 띤다는 것,

둘째, 분리구문 전제는 대조를 동반하는 조용적 관계가 설정되도록 가능하게 한다는 것, 셋째, 분리구문 전제의 정보는 그 객관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알리는(inform) 내용보다는 환기시키는(remind) 내용이라는 것 등이다. 이들 세 유형의 전제 조용성에 대한 언어적 증거를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첫 번째 증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애매한 요소들의 문제이다. 가령, so, such, as 와 같은 낱말들은 강조 용법으로도 조용적 용법으로도 애매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이 분리구문의 전제 이내에 있게 되면, 조용적 해석이 선호된다. 다음 (24)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24) Then there was the Test Act which insisted that all civil and military officers should take the oath of supremacy and allegiance and receive the Holy Communion according to the Church of England rite. *It was such legalistic hamfistedness which was to make the life of the Church of England such an artificial observance for so many in the following century.*

(모든 민간인과 군관리들은 수위인정과 충성의 서약을 해야하고 영국교회의 의식에 따라 성만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Test 법령이 있었다. 그러한 법률적인 서투른 조치는 영국교회의 생명을 다음 세기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위적인 법준수로 되게 했다.)

*such an artificial observance*와 *so many*는 분리구문의 전제 안에 있으므로 조용적 해석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교를 위해 분리구문이 아닌 다음 (25)를 가정하여 이 낱말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25) Such legalistic hamfistedness was to make the life of the Church of England such an artificial observance for so many in the following century.

위 (25)에서 *such*와 *so*는 강조적 해석이 가능할 뿐이다. 강조적 해석으로 본다면, 다음의 예와 같을 것이다: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그토록 인위적인 법준수로”. 따라서 비전제문의 *such*나 *so*와 같은 낱말들이 그 선행사를 찾을 수 없을 때, 독자나 청자는 그 어구를 오직 강조적으로만 해석할 것이다.

이 조용적 효과는 분리구문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 사실적 동사인 *regret*구문과 같은 전제적 환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비전제문인 (26a)와 (26b)에서, *such, so*의 강조적 해석이 보존되고, (26c)에서는 조용적 해석이 생겨난다:

- (26) a. The Test Act was to make the life of the Church of England such an artificial observance for so many.
 b. Clergy believed that the Test Act was to make the Church of England such an artificial observance for so many.
 c. Clergy regretted that the Test Act was to make the life of the Church of England such an artificial observance for so many.

다음으로 분리구문 전제의 두 번째 조용성에 대한 언어적 증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조를 동반하는 조용적 관계가 설정되도록 가능케 하는 분리구문 전제의 특성은 어떠한가? 여기서 대조(contrast)란 어떤 술어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두 담화요소 간의 대립관계 혹은 비교관계를 말한다. 또한 대조는 응집관계(coherence)의 한 형태로 인식되기도 한다. 예컨대, 다음 (27)에서 대조적 관계가 분리요소인 *the angel*과 이전 표현인 *Boaz* 사이에 슬어인 *use this form of greeting*을 중심으로 성립한다.

- (27) To this the reply is given that from the verse dealing with Boaz there is no proof of divine approval, only that Boaz used this form of greeting. But in the second verse it is the angel that uses this form of greeting and hence there is evidence of divine approval.(Boaz를 다루는 식귀에서 거룩한 승인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나 다만 Boaz가 이 인사형태를 사용했다는 답변이 주어졌다. 그러나 두 번째 식귀에서 천사가 이 인사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한 승인의 증거가 있는 셈이다.)

분리구문 전제가 조용성이 없다면 대조적 운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 대조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위 예들로부터 대조 관계는 논의의 문장과 선행문 그것도 현저해서 눈에 띄는 선행문 사이에 설정된다. 그 대조적 관계가 분리구문에서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리구문은 대조가 손쉬운 경우

예도 쓰이지만 대조되는 선행문이 모호할 경우에 분리구문은 더욱 필요하다. 물론 대조되는 선행문의 모호성은 선행문이 추론적으로 관계되거나, 전제가 선행문을 한정적으로 지시하거나, 아니면 선행문이 큰 담화의 일부분인 경우에 생긴다. 예컨대, 다음 (28)의 예에서, 분리구문은 복잡한 담화요소인 *the new fixtures and fittings*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요소인 *doubling the selling space to 700 square feet*와 대조적 관계에 있다. 매장을 두배로 늘리는 것과 그 공간을 채울 새로운 비품의 구입이 비용면에서 대조되고 있는 것이다. 분리구문의 전제인 *something would be costly*와 그 선행문인 *was not to be the greatest expense* 사이의 관계는 간접적인 추론관계이다. 그러나 (28a)의 분리구문만이 대조시킬 때 필요한 관계를 설정하는데 성공하지만, (28b)의 비분리구문은 필요한 관계를 설정하지 못한다.

- (28) a. Doubling the selling space to 700 square feet was not to be the greatest expense. *It was the new fixtures and fittings to fill this space that would be costly.*
 b. ?Doubling the selling space to 700 square feet was not to be the greatest expense. The new fixtures and fittings to fill this space would be costly.

이와 유사한 예는 다음 (29)에서도 나타난다. (29)는 요청을 출입하는 이들의 봉사료와 관련된 내용이다. 한 대조관계가 분리구문의 분리요소인 *the lady who obliges*와 선행어구인 *a nice old-fashioned housemaid* 사이에 성립한다.

- (29) Quite few of you have asked about tipping, and these days problems can arise. A nice old-fashioned housemaid, labelled by cap and apron, is easy enough; when you leave you will give her your little present as a thankyou for looking after you. *It is the lady who obliges that can confound you;* on that point, the simplest way is to quietly consult your hostess.

위의 대조는 술어인 *easy enough*과 *can confound you*를 기반으로 운용된

다. 대조를 위해 추론할 수 있는 술어는 *ease of tipping*과 같은 어떤 것이다. 그 술어는 난이도를 표시하는 척도의 양끝에 있는 두 요소 *housemaid*와 *lady who obliges*를 커버하는데 이바지한다. 다음 (30)은 (29)와 동일하지만 다만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만 다르며, 그 부분이 비분리구문이다.

(30) Quite few of you have asked about tipping, and these days problems can arise. A nice old-fashioned housemaid, labelled by cap and apron, is easy enough; when you leave you will give her your little present as a thankyou for looking after you. *The 'lady who obliges' can confound you;* on that point, the simplest way is to quietly consult your hostess.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29)의 분리구문만이 대조 관계를 설정하는데 성공하지만, (30)의 비분리구문은 대조 관계를 설정하지 못한다. 요약한다면, 분리구문 전제는 조용성 및 대조관계와 같은 응집관계를 설정할 수 있지만, 비분리구문은 조용성 및 대조관계 설정이 분명치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세번째로, 전제의 조용성 증거는 환기시키는(remind) 발화와 알리는(inform) 발화 사이의 구분에 있다. 청자가 전제된 정보와 사전 접근을 했을 수도 있으나 이야기 순간에 그 정보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에, 분리구문 전제의 효과는 분명하게 그 정보를 환기자(reminder)로서 부여하는 것 같다. 이런 방식으로, 다음 (31a)의 B의 대화에서 *In fact* 다음의 분리구문은 환기자로 행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In a point of time in the past, I sent my circular letter around to various scholars and I sent you a copy"라는 전제 때문이다. 반면, (31b)의 비분리구문은 단언문의 특징인 '첫 언급'(first mention)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를 알리는 발화로 구분되고 있다.

(31) a. A: To be frank, I've heard from a number of sources that when you were interviewed for a job here that you think that you didn't get the job because of me.(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일자리를 위한 면담을 하였을 때 나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 소식통으로부터 들리는데요.)

B: Oh no, I never said that . . . I went to great pains to tell people that you were the one supporting me. In fact, it

was VERY shortly AFTER that INTERVIEW that I sent my circular letter AROUND to various scholars and I sent YOU a copy.(아뇨,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저를 후원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란 매우 어려웠죠. 바로 면담 직후에 저는 여러 학자들에게 저의 회람편지를 들렸고 당신에게도 사본을 보냈습니다.)

b. In fact, VERY shortly AFTER that INTERVIEW I sent my circular letter AROUND to various scholars and I sent YOU a copy.

지금까지 우리는 전제가 한 정보에 대한 선행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그 조용성에 대한 세 가지 언어적 증거를 살펴 보았다. 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조용적이며 강조적인 용법을 가진 애매한 언어요소들이 분리구문에서 조용적으로 쓰이는 것이요, 둘째는 난해한 대조 관계의 설정 가능한 분리구문의 조용성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셋째는 동일한 맥락에서 전제적 환기기능과 단언적 알림 기능 사이의 구분은 조용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결 론

전제를 조용어로 보는 van der Sandt의 분석은 대명사의 조용분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임과 이는 매우 설득력을 가진 타당한 분석임을 예들을 통해 살펴 보았다. 물론 이들 사이에 부분적으로 불일치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전제와 대명사 조용어의 기능이 완전 일치할 이루지 못하는 경우로서 선행어가 없는 상황에서 대명사 조용어는 그 해석을 가질 수 없으나 전제는 전제수용 현상을 통해 그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부분적인 상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전제가 조용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특히 분리구문의 전제를 중심으로 그 전제가 발휘하는 조용성을 살펴보는 가운데, 먼저 이러한 관점의 유용성으로서 담화표시이론에서 전제의 복잡한 처리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는 것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제가 담화상에서 기능하는 세가지 속성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용법상 애매한 언어요소들(such, so, ...)이 분리구문 전제안에 있게 되면 조용

적 성격을 띤다는 것, 둘째, 분리구문의 전제가 대조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조용성 때문이라는 것, 셋째, 전제가 환기하는 발화로서 구분될 수 있음도 그 조용성에서 연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속성들은 역으로 분리구문의 전제가 조용성을 띤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들로서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창익(1997). '전제투사문제와 맥락', <호서대학교 논문집>, 제16집. 203-224.
- 김창익(1997). 'Accommodation in Presupposition Failure', <호서영어영문학회> 1: 1-10.
- 조경숙(1998). '비한정 명사구의 의미와 대명사 조용현상', <언어학>, 제6권 제1호, 193-214.
- Chierchia, G.(1995). *Dynamics of Meaning: Anaphora, Presupposition and the Theory of Grammar*.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ierchia, G. and S. McConnell-Ginet(1990). *Meaning and Grammar: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Cambridge: MIT Press.
- Dinsmore, K.(1979). *Pragmatics, Formal Theory, and the Analysis of Presupposition*. Bloomington: Indiana U. Ling. Club.
- Declerck, R.(1988). *Studies on Copular Sentences, Clefts, and Pseudo-Clefts*, Vol. 5, Series C Linguistica, Leuven University Press/ Foris Publications, Dordrecht.
- Delin, J. L.(1989). 'Cleft constructions in discourse', Ph.D. thesis no. 34, Centre for Cognitive Science, University of Edinburgh.
- Delin, J. L.(1992). 'Properties of It-Cleft Presupposition', *Journal of Semantics*, Vol. 9, No. 3, p.p. 289-306.
- Frege, G.(1952). 'On Sense and Reference', in P.T. Geach & M. Black(eds.) (1952), 56-78.
- Gazdar, G.(1979). 'A Solution to the Projection Problem,' in Oh & Dinneen, eds.(1979), 57-86.
- Heim, I. E.(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Ph.D. Dissertation, U. Massachusetts.
- Heim, I. E.(1983). 'On the Projection problem for presuppositions', *Proceedings of the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2: 144-26.

- Kamp, H.(1981). 'A Theory of Truth and Semantic Representation,' in J.A.G. Groenendijk, T.M.V. Janssen & M.B.J. Stokhof(eds.), *Formal Methods in the Study of Language*, Mathematical Centre Tracts 135, Amsterdam, 277-322.
- Karttunen, L.(1973). 'Presuppositions of compound sentences', *Linguistic Inquiry*, 4:167-93.
- Karttunen, L.(1974), 'Presuppositions and Linguistic context', *Theoretical Linguistics*, I, 1: 181-94.
- Lewis, D.(1979). 'Scorekeeping in a Language Game',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8:339-59.
- Prince, E.(1978), 'A comparison of WH-clefts and it-clefts in discourse', *Language*, 54, 883-906.
- Sandt, R.A. van der(1988). *Context and Presupposition*, Croom Helm, London.
- Sandt, R.A. van der(1989). 'Presupposition and discourse structure', in Bartsch, J. van Benthem & P. van Emde Boas (eds), *Semantics and Contextual Expression*, Foris, Dordrecht, 287-94.
- Sandt, R.A. van der(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s anaphora resolution', *Journal of Semantics*, Vol. 9, No. 3, 333-377.
- Sells, P. & T. Wasow 1994. 'Anaphora', in Asher & Simpson, eds.,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1., 116-121.
- Soames, S.(1982). 'How presuppositions are inherited: A solution to the projection problem', *Linguistic Inquiry* 13, 483-545.
- Stalnaker, R.(1974). 'Pragmatic presuppositions'. In Munitz and P. Unger, eds., *Semantics and Philosoph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213.
- Strawson, P. F.(1964). 'Identifying reference and truth-values', *Theoria* 30, 96-118.
- Zeevat, H. W.(1991). *Aspects of discourse semantics and unification grammar*, Ph.D. thesis, University of Amsterdam.
- Zeevat, H. W.(1992). 'Presupposition and accommodation in update semantics', *Journal of Semantics*, Vol. 9, No. 3, 379-412.

337-795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산29-1

호서대학교 인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E-mail : cikim@office.hoseo.ac.kr

Fax : +82-417-540-5134